

경영저널

국회에 바란다 시민들이 바라는 제20대 국회
Cover Story 김부겸 국회의원
정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역효과'
지자체는 지금 대구시, 택시 감차 시동 걸었다
포커스 리딩 지역주택조합, 선불리 가입하면 '낭패'
이슈 돌보기 전국은 지금 '1인 가구' 열풍
음식 명가 미성복어불고기
건강 플러스 여름철 피부 암살자 '자외선'
만나고 싶었습니다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52th
2016 6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06 **국회에 바란다**
시민들이 바라는 20대 국회
- 08 **커버스토리**
김부겸 국회의원
"상생과 협력으로 대구에 변화의 바람 일으킬 것"
- 12 **지역명소 소개**
수성못, 대한민국 대표 명소 '발돋움'
- 14 **축제**
'2016컬러풀대구페스티벌' 성료
- 16 **IT Focus**
신산업 블루칩, 빅데이터
- 18 **정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역효과'
- 20 **칭찬합니다**
이봉기 수성구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 22 **사회**
청년은 '줄고', 노인은 '늘고' 대구경북이 늘어간다'
- 24 **대구를 지키는 사람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 26 **이슈 앤 이슈**
수성구 스마트 복지시대 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자치부
www.gov30.go.kr





- 28 **정책제안**
대구시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계산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 30 **정책제안**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제안
- 32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 34 **지자체는 지금**
대구시, 택시 감차 시동 걸었다
- 36 **포커스 리딩**
지역주택조합, 선불리 가입하면 '낭패'
- 38 **이슈 돋보기**
전국은 지금 '1인 가구' 열풍
- 40 **문화가 소식**
- 42 **현장출동**
지역 업체, 지자체 용역 계약 '찬밥'
- 44 **음식 명가**
미성복어불고기
- 46 **Economy**
경산시, 화장품 특화단지로 날개 단다
- 48 **건강 플러스**
여름철 피부 암살자 '자외선'
- 50 **만나고 싶었습니다**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 52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 53 **지역 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2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홍순대
취재	이 혁, 도효진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배은정
편집위원	윤정현, 민경량,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주)
발행처	http://www.dgnews.co.kr
본사	경북 경산시 외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북, 라 06418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 가 : 8,000원
예 금 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 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경북·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경북 경산시 외촌면 새터길 30-15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지난 4월 13일 정가는 4.13 총선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국민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등장으로 인한 양당 체제 붕괴와 더불어 ‘TK’, ‘호남’ 등 정당의 주요 텃밭들이 뒤틀리면서 수많은 변수를 낳았다. 새누리당은 공천 갈등에 대한 뼈저린 심판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잃었다. 국민의당은 예상외의 선전으로 맹활약했으나 아직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뒷심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제20대 국회가 드디어 첫 발을 뗐다. 민심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선거였던 만큼 의원들에게 바라는 바도 많다. 대구 시민들은 제20대 국회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본보가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제20대 국회를 담아봤다.

시민들이 바라는 제20대 국회

“유권자를 무시워하는 정치인 퇴길”

나는 20년 이상 한나라당(새누리당 前 명칭) 지지자였다. 당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나라의 중심을 잡고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생각에 투표에서는 늘 1번만 찍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갈등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대뜸 무릎 꿇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후보를

당만 보고 찍어달라니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후보도, 정당도 야당을 찍었다. 우리 대구가 새누리당을 품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유권자를 무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 혈세로 지위를 누리려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대구 북구 박00)

“문화 도시’ 수성구 만들자”

수성구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교육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다. 하지만 최근 수성구는 균형 발전, 규제 등의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다. 고루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수도라고 불리는 수성구가 이렇게 멈춰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엔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주민들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민의 친구, '희망이'와 '사랑이'

좌) 희망이

나라를 위한 뜻이 시들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자라나기를 염원하는 국회의 마음이 푸른 새싹으로 돌아난 국민의 친구, '희망이'

우) 사랑이

국민을 사랑하는 다정한 친구 '사랑이', 사랑이가 지닌 분홍빛 하트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 마음이 담겨있다.

번 총선에서 투표할 때 특히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수성구 후보들은 주로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공약들이 많았다. 이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다. 수성구는 '문화도시 대구'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공장, 대기업 유치로 덩치를 키우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문화 콘텐츠로 도시 브랜드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수성구를 살리는 길이다.

(대구 수성구 김00)

“서민경제 살리기 힘 쏟아 달라”

참 요란스러운 총선이였다. 누가 잘했든 못했든 결국 투표로 다 심판 받았다. 이제 중요한 건 민생이다. TK지역,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난 건 정치에서 소외된 민생 때문이다. 민심은 결국 먹고사는 데 문제없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대구는 도시 규모에 비해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나 시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서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 야시장을 연다고 하고 도시철도 3호선도 운영 중이지만 지역 상

인들은 여전히 팍팍하다. 더민주당에서도 이번 총선은 '경제 선거'라고 강조했던 만큼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민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줬으면 한다.

(대구 중구 김00)

“대구, 소통과 균형발전 필요”

이번 총선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이 이슈가 됐던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대구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들도 많이 제기됐으면 한다.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애정을 가져 달라. 벌써 몇몇 국회의원들은 당선 후 매일 시민들과 나누던 SNS까지 뜸해졌다.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야 지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역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터인데 제19대 국회의 구태 정치를 답습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대구 수성구나 중구가 발달한 데 비해 서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경제발전이나 복지커녕 치안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돈이 되고 이름 날 수 있는 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여러 지역

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 달라.

(대구 서구 김00)

“청년 유출 없는 대구 만들어야”

대구가 청년 유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 역시 취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타지로 나갈 생각이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바라본 대구는 너무 열악하다. 다양성 없는 일자리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낮은 임금 등 기피하고 싶은 조건은 모두 갖췄다. 때문에 타지에서 지역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도 졸업장을 따자마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로 올라갔다.

시에서 청년 취업 관련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미 청년들은 마음이 떠난 상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정부 차원의 청년 취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 '시도' 등 희망고문 하는 말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타지로 떠나고 있다. 하루 빨리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 달라.

(대구 남구 이00)

이 혁 기자

| 인터뷰 |

김부겸

국회의원

Profile

1958 경북 상주 출생
1968 대구초 58회 졸업
1971 대구중 26회 졸업
1975 경북고 56회 졸업
1987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2000~12 제16, 17, 18대 국회의원(전/경기도 군포시)
200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전)
2011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전)
2012 제19대 총선 수성구(갑) 40.4% 득표
2014 대구시장 후보 수성구(갑) 50.1% 득표
2016 제20대 총선 수성구(갑) 당선

“상생과 협력으로 대구에 변화의 바람 일으킬 것”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 드디어 제20대 국회가 출항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희로애락이 뒤섞여 여야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여당의 텃밭인 TK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수성구(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의원이다. 김 의원은 후보이기 전에 한 명의 ‘대구사람’으로서 지역의 문제점, 대안을 짚어냈다. 특히, 경제활동 핵심계층인 25~45세 청장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청년기업타운 조성 등 굵직한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남부권 신공항 유치로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호소했고, 그 결과 대구 정치번지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당선 타이틀을 얻어냈다. 이미 수성구에서 제19대 총선과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쾌거였다. 이제 ‘변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부겸 의원은 당선 기쁨은 가슴 한편에 담아둔 채 국회의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본보에서는 김부겸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Q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감은 어떤지?

A 대구 시민들이 새 역사를 써주셨습니다. 정통 야당 출신으로는 31년, 소선거구제하에서는 45년 만에 대구에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늘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이던 대구에서 수성(갑)의 사전 투표율이 서울 종로구보다 높은 16.27%를 기록하고, 최종 투표율이 거의 70%에 달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대구의 변화에 목말라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보수를 지키던 중, 장년층 분들까지 지지를 보내주시는 걸 보고 절대 이 민심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 어깨가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선됐다고 뽐내지는 국회의원이 아닌 먼저 손 내밀고, 자세를 낮추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정치를 넘어 여야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싸우더라도 분명한 대안을 내놓고 싸우는 정치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대구시민과 수성구민께 앞드려 감사드립니다.

Q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부담스럽진 않은지?



A 변화는 당선의 원동력이자 앞으로 임기 동안 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부담이라기보다 믿고 지지해주신 민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에서 “야당 국회의원 만들어놨더니, 뭔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대구는 변화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 대구에 온 목적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지역주의를 한쪽 당이 싹쓸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대구에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지역주의의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는 서로 싸우다가도 민생을 챙기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지만 한 쪽 당이 지역정치를 이끌게

되면 결국 민생과 지역 발전은 등한시 되고 맙니다. 이를 해결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임기 동안의 목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만 있는 것보다 야당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당은 힘이 있고, 야당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협력하는 사업이면 국회통과도 훨씬 쉬워집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여야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야 모두 이제부터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될 생각입니다.

Q 대구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건 청년들이다.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나?

A 대구의 청년 유출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갈수록 청년 취업난이 심해져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변화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힘이 가장 절실합니다. 가장 뚜렷한 해답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6.5%에 불과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올리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지 않고,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기업 타운'을 조성해 수성의료지구 내 청년기업 입주, 창업교육, 자금지원, R&D 지원 등 창업 전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 언급했던 청년 공공주택 제공도 실시해 낡은 고시원, 여관, 빈사무실 등을 세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대구의 변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어떤 것들이지?

A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내륙 도시인 대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교통 및 물류 방면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면 경북도와 함께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영호남 동서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해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협력,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악영향 해소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을 위해 여당 의원들과도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대구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수성구에서 당선된 만큼 구민들의 기대도 크다. 수성구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이번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대구의 중심 수성구를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성 힐링 테마파크 조성, 콘텐츠·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금호강 미래클러스터 등 3가지를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수성 트램 도입, 스포츠테마파크 유치, 수성알파시티 내 푸른 꿈 창작소 추진 등 3개의 공약과 합쳐 '콘텐츠 중심도시 수성구' 비전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수성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로 도심 속 치유의 숲을 만들어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대공원역 인근 부지의 민간공원 추진 방식으로, 전체 부지 중 30% 이내 비공원 시설 개발을 통한 이익잉여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정)을 제정해 공연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대구 콘텐츠진흥원과 대구 무대예술 복합센터를 신설,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호강 미래클러스터 프로젝트에서는 금호강 수질생태를 복원한 후 경산~수성구~북구~구미로 이어지는 생태환경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금호강 인근 하중도를 개발해 생태공원·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수성구뿐만 아니라 동별 숙원사업도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지?

A 고산권은 신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고산3동 주민센터~매호천 도로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할



니다. 또, 학교가 부족했던 경산 방면 사월동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초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범어권에는 수성구민운동장 개방시간 연장, 시설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신천 시장 및 인근 상가 시설 개선,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황금권에서는 이미 군포에서 해낸 바 있는 ‘송전탑 지중화’를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회관 본관 재건축과 진로, 직업체험관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등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황금동 고가교 철거 역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촌권은 수성도서관, 화랑공원 시설 개선과 만촌역 수성대, 만촌2동 주민센터 방면 출구 신설, 만촌2동 주민센터 재건축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성구민들의 지지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Q 수성구는 대구의 대치동으로 불릴 만큼 교육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교육 방면 정책들은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A 수성구는 뜨거운 학구열만큼이나 사교육이 성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수업 보충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입시와 사교육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어·영어·수학 수업 전문교사를 배치해 균등한 교육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학교 내 고질적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폭력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한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상생학교’

인증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중입니다. 또한, 학생들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개인별 전략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 수요 증가에 발맞추고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등 ‘명품 교육도시 수성구’라는 명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Q 제20대 국회에서의 각오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제19대 총선과 대구시장 후보 모두 수성구(갑)으로 출마했다가 좌절한 후 세 번째 기회에서 시민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탈락들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대구 시민들과 골목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20대 국회에서 대구를 발전시킬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어렵게 뿌리내린 대구의 정치지형을 경쟁구도로 바꿔 지역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당, 인물을 뛰어넘어 협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말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야당 예결위원들을 만나 예산 요구액을 지킨 바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초심을 잃고 자만하거나 느슨해지면 언제 어디에서든 쓴 소리와 채찍질을 달게 받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국회의원 김부겸이 아닌 대구사람 김부겸으로서 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혁 기자



대구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은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이자 소풍, 가족 나들이 단골 장소로서 대구 시민들의 추억과 낭만이 담겨 있는 장소다. 대구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수성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먹을거리, 빼어난 야경, 오리배, 수성유원지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백화점'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린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덕분에 일 년 내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연간 방문객이 1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이 도시철도 3호선 운영과 유람선, 오리배 야간 운행 개시 등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수성구청에서도 관련 규제 철폐, '수성못 4계절 천객만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성못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해외 관광객까지 사로잡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성못,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발돋움'



수성못, 90여 년의 역사

수성구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수성못은 규모 1,063,778㎡, 못 둘레 2,020m, 저수량 70만 톤으로, 수성구 범물동 용지봉(629㎡)에서 북서부로 뻗어 내린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호수를 빚어낸 까닭에 수성구의 '젓줄'이라고도 불린다.

수성못은 1925년 일제 강점기 시절 잦은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축조됐다. 1980년대 무렵 농업용수 공급이 불필요해 지자 오늘날처럼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후 1983년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유원지 진입로를 확장하고 인근 상가와 불량건물을 정비해 수성유원지가 조성됐고, 벤치와 수목, 산책로, 유람선 선착장, 놀이공원 등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난 2007년에는 영상음악 분수가 설치돼 분수 쇼 등으로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맛과 멋, 즐거움 두루 갖춘 '팔방미인'

대구의 중심이자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성구에는 시민들이 몰리는 만큼 대표 맛집들도 모여 있다. 수성못 인근에는 '대구 10대맛'을 선보이는 식당부터 입 맛 따라 고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다양하다. 덕분에 주말 저녁이면 맛집을 찾는 손님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놀이시설과 간식들로 어린이들을 매료시키는 수성유원지와 동지섬 주변으로 펼쳐지는 분수 쇼 등은 수성못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특히, 올해는 '제9회 대구국제제즈페스티벌'과 '수성못 페스티벌' 등이 수성못과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려 전국 관광객들의 이

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이에, 수성구청에서는 올해 초 관광과를 신설해 '수성못 4계절 천객만래 종합계획'을 수립, 들안길 먹거리 타운, 버스커 공연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 유람선 야간 운행으로 날개 달다

수성못의 제2 전성기를 연 건 도시철도 3호선이다. 도시철도 3호선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모노레일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성못 역이 3호선 역으로 신설된 덕분에 시민들의 방문이 한결 편리해졌다. 그 결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 1주년이 지난 현재 수성못을 비롯한 수성역 인근까지 '부동산 노른자' 지역으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수성못 유람선, 보트 야간 운행으로 인해 야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즐길 거리가 추가됐다. 수성못에는 현재 오리배, 보트, 유람선 등 약 80여 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 이후부터 오리배와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근 상권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야간에 수성못을 찾게 되면서 야간 운행 첫 주말에 약 45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수성못, 규제개선 모범사례로

수성못 유람선, 오리배 야간 운행은 수성구청의 끈질긴 노력이 일궈낸 성과다. 수성못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는 일몰 후 유람선을 운항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불야성을 이루던 인근 지역과는 달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수성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지난 1년여 동안 농림축산



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규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수성못 야간 운영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두드리고, 현장간담회 개최하는 등의 노력 끝에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오리배 영업을 자정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수성구는 수성못 오리배, 유람선 야간 운행뿐만 아니라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상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 식품접객업소 옥상영업을 전국 최초로 허용한 바 있어 규제개선 모범사례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성못, '관광지' 지정 박차

수성구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등록돼 있는 수성못 인근을 관광지로 지정해 국비 확보, 세제 혜택 등 이점을 이용, 낙후된 수성구 서편 개발 추진에 힘 쏟을 계획이다. 수성구는 이달 중 용역을 실시해 오는 9월경 대구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수성구 안전 관리에도 앞장선다. 수성구는 대구시, 경찰청과 함께 일제 안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오리배 야간 운행 시 음주 조종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못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수성못을 관광지로 상징화 해 들안길과 연계한 호수공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혁 기자

'2016컬러풀대구페스티벌' 성료

'2016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시축제육성위원회와 컬러풀대구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조직되고 축제사무국이 구성·운영된 가운데, 기업체와 기관 등이 참여하고 후원하는 민간중심 축제로의 전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했다.

지난달 7, 8일 양일간 서성네거리부터 종각네거리에 이르는 국채보상로 2km 구간에서 열린 축제는 '모디라 컬러풀! 마카다 퍼레이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7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해 도심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축제 기간 동안 대구의 중심 대로인 국채보상로를 이틀간 차단해 큰 불편이 예상됐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 속에 진행돼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축제의 백미인 컬러풀퍼레이드에는 130개 팀 7천 3백여 명이 참가해 1억 3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각 구·군 대표 퍼레이드단의 기발하고 창의적이면서 지역색과 역사성을 표현한 공연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 내 축제를 한 층 더 빛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다문화가족·외국인유학생·무형문화재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과 중국·러시아·일본 등지에서 각국의 명예를 걸고 참여한 팀, 그리고 안동·원주 등 타 시도팀, 소방본부, 도시철도공사 등 기관에 이르기까지 3시간에 걸친 퍼레이드 공연이 이어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선보인 아트마켓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액세서리, 손수건, 티셔츠 등 150여 개 팀의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선보인 80여 종의 이색 상품을 사기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하루 저녁 매출만도 8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달 3일 개장 예정인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가 첫 선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33개 판매대가 줄지어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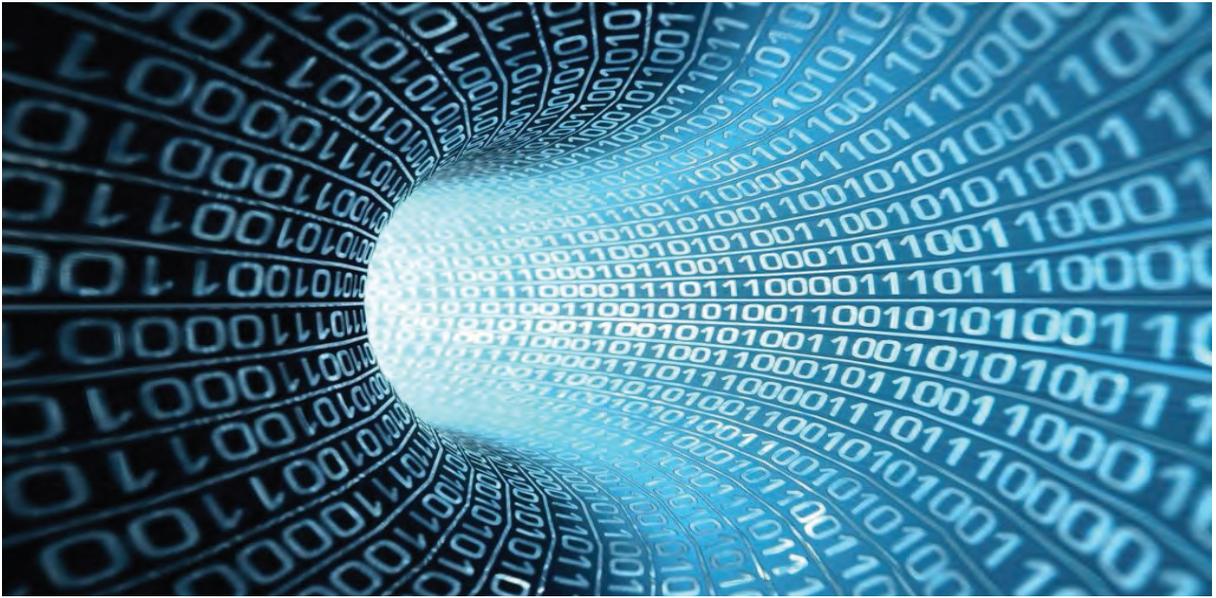
수제 버거, 전통 닭 강정 등 50여 개 품목을 판매해 일부 품목은 시간보다 일찍 재료가 소진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하루 동안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3천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더불어 막창구이, 무침회, 납작만두, 찜갈비 등 대구를 대표하는 '10미(味)' 7개 부스가 운영돼 평소 가격의 30~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번 축제의 시민 이벤트로 관심을 모았던 '분필아트 기네스 도전'은 아쉽게도 불발됐으나,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덕에 축제장 일대가 형형색색 그림들로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기네스 도전을 비롯한 축제 프로그램에 중국 등지에서 온 1천 3백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서의 잠재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분필아트 기네스기록 달성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참여를 통해 대구시민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은 아름다웠으며, 우리들은 이미 성공했다고 자신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동참 해주신 대구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대구의 명품 축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도호진 기자



신산업 블루칩,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차세대 IT 신산업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 등 세계 유명 기업들은 이미 이를 활용한 상품들을 상용화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통신 등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분야 육성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약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는 빅데이터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46%는 기업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답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담은 만큼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트위터에서만 하루 평균 1억 5500만 건의 글이 쓰여지고, 유튜브 동영상은 하루 평균 40억 회 가까이 재생된다. 여기서 세계 각지의 CCTV 영상 정보의 양까지 가능하면 사람들의 일상행동들이 모두 데이터이자 자산인 셈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입장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개인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악용될 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데이터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예외성 등 변수는 계산하기 어려워 아직 상용화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빅데이터의 향후 운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의미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전화, 문자, 인터넷, 이메일 등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3V로 요약되는데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 등이다.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했다. 과거 날개로는 별 가치가 없던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고, 생산성 향상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에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기업이다. 전 세계 기업들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로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고객관계관리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검색 및 전자상거래 관련기업은 빅데이터 활용 1등 주자다. 구글은 독감 관련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 세계 독감 환자 수와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독감 동향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구글의 자동번역 시스템,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 등은 빅데이터로 빛어낸 대표작들이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도 빅데이터 활용으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마존은 고객들의 도서 구매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특정 책을 구매한 사람이 추가로 구매할 것 같은 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마케팅 사례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위험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탈세 및 부정행위 방지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EU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시 행정비용의 15~20%에 해당하는 최대 300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국내에서는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업고 도약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

다. 개정된 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 활용을 허용, 빅데이터 등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덕분에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유망 기업으로 촉망받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비록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기업체를 벤치마킹해 공공부문 고객관계관리(PCRM, Public CRM)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심야버스 노선을 개설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인터넷상의 웹문서, 댓글 등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동향분석시스템'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론정보수집분석시스템'으로 시민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도 정보시스템 자원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표준화, 통합하는 'D-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축해 행정업무를 비롯한 대민 서비스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정보화 업무의 약 70%를 클라우드 표준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게 향후 목표다. 시는 오는 2018년 오픈 예정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ICT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 앞으로의 과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논란 속에서도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미 빅데이터는 우리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정치, 사회, 경제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빅데이터가 '21세기형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잊힐 권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용화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선진국의 60% 수준이고 약 3년 정도의 발전 차이가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십분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와 함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전문인재 육성 등이 수반돼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 등이 수반된 후에야 우리나라는 IT강국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효진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3개월 전부터 규제 확대를 예고했지만 이미 지방 아파트 매매는 하락세로 돌아선지 오래다. 그나마 분양 성격이 좋은 부산과 대구마저 수성구, 해운대 일부 지역 등 소위 '노른자' 지역에서만 선전을 펼치고 있어 하반기에는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실시한 지난해 대출실태 조사 결과 규제 강화의 핵심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이미 수도권과 지방에서 50%를 넘은 까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추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재개발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34.2% 감소했고,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또한 서울, 지방 모두 약 30% 가까이 줄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올해 들어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규제 완화에 직격탄을 맞았으나 분양 열기가 과열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분양 양극화'와 일부 투기 세력이 빠져나간 후의 '미분양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역효과'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발목 잡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요약하자면 대출을 '담보' 위주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대출 시 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며, 대출자가 지속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는지, 처음부터 분할 상환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대출자는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 소득 자료가 없을 시 인정 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 층 간간해진 대출 심사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주택매매를 장려하던 것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기조를 바꾸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 시 불가피하게 대출을 안게 되는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게 되면 가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6천 500여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거래량은 수요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지역 경제의 엇박자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 대출마저도 '공공'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심사 규제 강화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서민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 단기소액, 긴급 생활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 번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에서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과 은행별 자체대



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한 금융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 큰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정책 때문에 대출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출 창구를 찾은 고객들 대부분 당분간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질GDP도 전기 대비 0.4%에 그쳐 저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규제 강화가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때에도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이 25조 8천 5백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2천억여 원이나 증가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제3 금융권까지 이용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분양 양극화, 상가 집중 심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대구 수성구, 산업단지외 혁신도시 등 ‘노른자’ 지역은 분양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쉽고 임대료도 높은 도심 중심부 쪽으로 분양 및 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중구 남산동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중구 대신동 ‘편한세상 대신’ 등 중심지, 역세권 지역 아파트들은 분양 열기에 휩싸여 일부는 완판 되기까지 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규제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역시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

반면, 외곽지 분양시장은 신규 아파트 보다는 기존 아파트들이 대다수인 탓에 물량은 넘쳐나고 수요자들은 몸을 사리고 있어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부 주택투자자들은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 물건에 투자를 집중하는 등 주택시장을 등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심지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1천5백여 가구(수도권 9만 5500여 가구, 지방 5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 동기 간에 비해 23.6%나 증가해 전국적인 분양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불씨’ 지켜야

대구 경북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은 가계부채 증가라는 짙은 빛 현실에 그쳤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20% 가까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평가되던 게 도리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채무 상황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매매 열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지금 불씨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 경제를 이끌던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우 관련 산업에까지 타격이 가해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 부동산 업자는 “지금 수성구 등에 과열된 부동산 열기도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덮기 위한 거품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정상화해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혁 기자

이봉기 수성구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외유내강의 소통 전도사



“제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해주신다니 쑥스럽습니다”

수성구청 교통과 이봉기 팀장이 인터뷰에서 처음 한 말이다.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동안 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과 동료들을 배려해 온 그는 인터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겸손함을 놓지 않았다.

재난안전과, 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등을 거쳐 현재 수성구청 교통과 교통 행정팀에 근무 중인 이봉기 팀장은 소통으로 팀원들을 이끌어간다. 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며 공직생활을 이어온 비결로 소통을 꼽았다. 그래서일까. 직원들이 바라보는 이봉기 팀장은 온화한 인상처럼 자유롭고 격의 없는 대화와 농담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나가고, 직원들의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 행사나 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바른 생활맨이다. 월요일 아침 월요병과 함께 찾아오는 업무 스트레스도 그의 대화와 함께라면 자연스럽게 물러난다. 덕분에 회의나 업무 끝에는 늘 소통과 양보 속에 협력이 꽃핀다.

퇴근 후에도 그의 ‘바른 생활’은 이어진다. 그 역시 일과 가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대한민국 가장이지만 결국 우선순위는 가정에 뒤편이라고 강조한다. 아내, 자녀들과 허물없

이 어울리는 비결도 역시 소통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미를 따라잡기가 벅차기도 하지만 이미 웬만한 아이돌이나 예능 프로그램은 꿰고 있다. 가족들에게 이봉기 팀장은 듬직한 가장이자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고민 상담소다.

하지만 이런 유순함 뒤에는 강직하게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추진력이 있다. 그는 행정 업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무보험차량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의 중책들을 정도(正道)로 이끌어 나간다. 자신의 좌우명인 ‘일체유심조’처럼 바른 마음가짐으로 모든 업무를 순리대로, 정해진 규율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 특히, 타 부서에 비해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그의 강직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빈틈 없는 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그의 업무지시에는 늘 ‘최신’, ‘치밀한’, ‘철저한’, ‘완성’ 등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이봉기 팀장의 향후 목표는 수성구 교통정책 최대 과제인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이다. ‘교통사고 30% 줄이기’는 오는 2018년까지 2014년 대비 30% 가량 줄이는 사업이다. 이 팀장은 이를 위해 관내 교통사고 상위 10개 지점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 도로구조 문제 해결과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매달 캠페인 활동도 전개해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나선다. 구청에서 민원을 기다리는 공무원이 아닌 직접 현장으로 찾아나가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50대 중반에 다다른 그이지만 아직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자칫 혼자만의 열정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통하는 눈과 귀, 마음이 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봉기 팀장은 “팀장이든 가장이든 간에 모든 일은 혼자서 해낼 수 없다.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다”며, “결국 해내는 건 다 같이 해야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소통하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혁 기자



청년은 ‘줄고’, 노인은 ‘늘고’ ‘대구경북이 늙어간다’

대구와 경북이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비해 청년층은 매년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대구는 1만 3천여 명, 경북에서는 5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떠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층이다. 이에 대구 경북의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구경북 인구 순 이동은 전년 동기에 비해 대구 4천 352명 유출, 경북은 1천 970명 유입됐다. 전체 인구 순 이동은 지난 2014년에 비해 대구 1만 2천 940여명, 경북은 577명이 유출됐다. 연령별로는 25세~29세가 3,215명 줄어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의 경우, 혁신도시가 들어선 김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순유입을 나타낸 반면 구미는 지역 내 순유출 1위를 차지해 경제적인 부분이 인구 유, 출입에 가장 많은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

청년층이 대구경북을 떠나는 이유 1순위 역시 취업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청년들 대부분은 취업 의사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공단에 한정된 일자리나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나 계약직에 그치는 고용 형태 등으로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경기로 인한 일자리 축소나 임금, 처우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청년들의 눈길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난 2013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대구 청년 6천명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했다. 부산(5천 447명), 경북(3천 167명), 광주(3천명) 등을 앞지르는 수치다. 이같이 청년 인구가 유출하면서 대구 구, 군의 인구유출도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서구는 인구가 약 2.40%, 남구는 1.4%, 수성구도 1.05% 줄었다.

청년 취업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청년 유출의 근본적인 이유가 더 뚜렷이 보인다. 지난해 대구 청년 실업률은 11.4%로 전국 평균 9.0%를 훌쩍 뛰어넘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임금마저도 전국 평균의 90% 수준이다. 그나마 취직한 청년들 중 정규직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경북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북 내에 약 35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수십 만 명은 잠정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대구경북은 고령화라는 문제를 떠안게 됐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노인을 봉양하는 구조를 벗

어나 적은 젊은이들이 대다수의 노인들을 봉양해야하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특히,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신도청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안동도 오는 2030년에는 인구 10만 명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안동에 주민등록을 둔 60살 이상 노인들은 4만 5천572명으로 전체 시민 16만9천221명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년 전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은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오는 2030년에는 31.1%, 2040년에는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6.1명에서 오는 2040년 8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지역도 고령화 늪에 빠졌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의 65살 이상 인구는 약 12.7%이고, 오는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4.5%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취업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구시는 이미 올해를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청년창업기업 육성 계획을 세웠다. 청년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mismatch 해소 등으로 청년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대구 건설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구의 사회 분위기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꿔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구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여보면,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를 토로하며, 두 번째는 열정을 표출할 기회가 없는 대구문화의 답답함을 호소한다. 또한 학비, 주거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권 시장은 이러한 대구 청년들의 현실을 꼬집으며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올해 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기업, 기관들과 연계한 '1사(社) 1청년 더 채용하기' 캠페인 등 데이터

상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역 청년채용 권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도의 노력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유출 방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취업에 관련해 아직 보수적인 색이 짙어 다양한 취업문을 통해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안정이 불안정하다는 것. 또한, 대기업 유치나 연계 일자리 창출 등 기업에만 기댈 게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 속에서도 지역 청년들은 내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여건만 된다면 고향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게 대다수 지역 청년들의 속마음이다. Y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양은 "이미 전국적인 취업난 때문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렸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다"며, "일부 통계조사에서 타 지역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한 또래들 역시 대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 '올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한 차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부유함을 떠나 기본적인 여건만 만족된다면 당연히 대구에서 취직하고 싶지 않겠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혁 기자

청년실업률 추이 (단위: %, 4월 기준)



대구는 역사적으로 국난극복에 앞장서 온 도시다. 일제의 경제적 압속에 맞선 국채보상운동,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된 2.28 학생의거 등이 대구에서 일어났고,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도 대구에서 최초로 추진됐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는 140여 개의 지역 기관, 단체들로 이뤄져 대구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김과 동시에 지역 현안 해결, 시민 화합·소통 등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유출, 경기 침체, 고령화 등 오늘날 대구가 알고 있는 고질병들에 대한 해답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대구자랑운동', '담장 허물기 사업' 외에도 청년-노인 상생 프로젝트와 이웃사랑창구 운영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향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담장 너머 사랑운동'사업 시행 후 모습.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이하 대구사랑운동)는 1996년 지역 경기 침체와 정치적 소외로 시민들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잃고 있을 때, 시민들이 앞장서서 대구 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구 기관, 단체들이 20년 동안 민·관 협력 지역 발전 사업을 이끌어 온 결과, 현재 전국 최대, 최고의 협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대구사랑운동은 대구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 대구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는 '보수', '완고함'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예전부터 여러 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도시로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인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다는 것. 실제로 대구는 신라와 가야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를 통해 수많은 국가 동량을 배출해왔다. 또한, 미국 선교사들과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 중국 화교들이 대구에 머무르면서 타 도시에 비해 개방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대구사랑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비춰봤을 때 대구시 및 지역 기관, 단체들이 화합·소통을 중시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펴내는 건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여지책이 아닌 과거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긍정적인 정



‘대구사랑운동’ 지역 명소 탐방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체성은 살리고 새로운 문화, 계층들은 적극 받아들이는 ‘온고지신’ 자세로 무지개 같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게 대구사랑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대구사랑운동은 ‘담장너머 사랑 운동’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담장너머 사랑 운동’은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폐쇄적인 도시 이미지를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젊은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시작됐다. 대구사랑운동은 이 사업을 통해 녹지 공간 36만1천㎡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녹색도시 선도, 이산화탄소 저감 등으로 30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

또한, 대구 도심 내 관공서, 학교, 주택 등의 담장이 있던 자리에 공원, 녹지, 조경 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됐고, 이웃 간에 벽으로 단절돼 있던 것과는 달리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배타적 문화를 허무는 데 공헌했다. 대구사랑운동은 향후 아파트, 대형 건축물, 학교, 개인 주택 등 신축 시 사전에 담장 조성을 방지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장너머 사랑 운동’이 녹지 조성 및 시민 소통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대구사랑운동의 또 다른 중점 사업인 ‘대구사랑운동’은 시민들에게 대구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바로 알려 지역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구 재창조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대구사랑운동은 지역 주요명소 탐방, 대구바라보기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 시민들의 지역 사랑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지에서 유입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 명소와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추진 등 기존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출신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사랑운동은 정체성 확립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변화의 핵심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제 일자리를 찾는다면 실업 문제 해결과 경기 회복은 물론

노인층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마리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유출과 노년 파산이 급증하는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일자리 워크숍 등을 통해 해답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사랑운동은 창립20주년을 맞아 기존 사업 확충, 향후 사업 밑그림 구상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사랑운동 20년 성과 전시회, 협치 컨퍼런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사랑운동 20년 성과 전시회에서는 ‘대구 의 어제와 오늘’, ‘담장 허물기 사업’, ‘나눔 장터 운영’, ‘이웃사랑운동’ 등 분야별 성과를 전시하고, 협치 컨퍼런스 부분에서는 세대·갈등 극복, ‘달빛동맹 간 협치 토크’ 등 광역지자체 간 협치 모델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20주년 행사에서는 시민사회박람회 등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공동체 활성화 확보와 더불어 지역 변화를 체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는 “시민 주도 지역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자본,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대구를 지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생산적인 대구, 참여하는 대구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수성구 스마트 복지시대 열다

수성구청이 운영 중인 '복지밴드 앱'이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결 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앱의 정식 명칭은 '수성구 복지소의 계층 발굴, 지원단 복지밴드'로 수성구만의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다. 복지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지원팀, 운영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발굴팀이 복지소외계층 및 소외가정을 발굴하면 밴드 '도움요청'란에 사연을 작성하고, 이후 운영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확인한다.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팀이 정부 보조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등 후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덕분에 밴드가 개설된 지난 1월 1일 이후 복지밴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예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조 모 씨와 그 가족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지에서 쫓겨날 처지라는 글이 올라오자 복지밴드가 출동해 긴급 주거비를 지원했다. 또한, 범어2동에 거주 중인 A 씨가 남편의 정신분열증세로 인해 고통 받다 이혼 후 홀로 자녀양육을 맡게 돼 정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밴드 사례관리사가 방문해 심리치료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도배 및 장판 교체,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하며 생활에 큰 보탬이 돼 줬다.

이 밖에도 1인 가구인 B 모 씨가 우울증이 심해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한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병원 입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복지밴드는 공공부조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불만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수성구 주민들은 복지밴드 앱으로 인해 복지 울타리가 넓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수성구가 대구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어려운 이웃들도 적지 않다”며, “복지밴드 앱이 단순히 선례 남기기용 행정이 아닌 주민을 돌보고 소통하는 엄마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복지밴드가 점차 자리 잡아가면서 지역 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복지 사각지대의 어두운 그늘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복지밴드' 운영 활성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복지정책과 밴드 운영 등을 안내하는 복지정책 순회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다.

도호진 기자

대구시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계산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산정기준이 구·군별로 제각각인 탓에 원가계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계산 기준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환경부 고시 2013-53호)'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발주처가 규정보다는 기준 운영비 산정 관행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의 상여금 지급 기준 '제각각'

먼저 인건비의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의 기본급에 의해 산정하고 일일 8시간 기준, 월 근무일수 × 12개월로 연간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전 대구광역시 구·군별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상여금은 연400%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달리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장 적은 지자체로는 달성군과 남구로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50%가 적용되고 있고 중구, 북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는 기본급의 연 100%, 가장 많은 곳은 동구로 연 150%가 적용됐다. 이는 규정 내 인건비 산정기준 중 특수조항인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의 규정에 따라 현 지급수준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 산정기준을 임의로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표1)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상여금 적용 기준

구분	달성군	중구	북구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	동구
상여금 지급기준	50%	100%	100%	100%	50%	100%	100%	150%

주) 자료 : 2015년 대구광역시 내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결과 참조

>>제수당 지급, 지자체마다 달라

제수당 지급기준 규정을 살펴보면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 특성상 시민교통편의 및 작업효율 증대, 시민 활동시간의 미관을 위해 야간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근무자들은 빠르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작업이 시작돼 오전 내 작업을 완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야간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이 상이하게 적용돼 있다.

야간수당이 적용된 지자체는 수성구와 동구로, 수성구는 1일 1시간의 야간작업을 인정해 주 6시간이 책정돼 있고, 동구는 주 8시간이 책정돼 있으나 그 이외의 지자체는 야간수당이 책정돼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수당지급 등을 이유로 주간작업 기준을 적용해 원가산정을 하고 또 주간에 작업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자들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교통 불편과 도시 미관 불청결 등의 이유로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2)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야간근로수당 적용 기준

구분	달성군	중구	북구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	동구
야간근로수당 적용 기준	없음	없음	없음	주6시간	없음	없음	없음	주8시간

주) 자료 : 2015년 대구광역시 내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결과 참조

>>위험·운전수당 기준 모호, 형평성 논란 이어져

또한, 위험수당과 운전수당 관련 규정인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뤄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을 월 90,000원을 적용하고 청소 차량 운전자에게 한해 운전수당 월200,000원을 적용한다' 는 규정도 기준이 모호하여 운전수당은 전 지자체가 운전원들에게 월200,000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특수 작업수당의 경우 운전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내 8개 구·군 중 수성구와 동구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타 지자체는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표3)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전원의 위험수당 및 운전수당 적용 기준

구분	달성군	중구	북구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	동구
위험수당	월90,000원	월90,000원	월90,000원	없음	월90,000원	월90,000원	월90,000원	없음
운전수당	월200,000원							

주) 자료 : 2015년 대구광역시 내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결과 참조

>>지자체별 인건비 격차 극심,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이처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실제 원가계산 결과, 1인당 인건비 산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운전원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달서구로 연간 44,666,316원으로 산정됐으나 가장 적은 수성구는 39,875,889원으로 산정돼 최대 1인당 연간 격차가 4,790,427원으로 나타났다. 수거원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는 동구가 연간 42,080,364원으로 산정됐고 가장 적은 지자체로는 수성구가 38,555,965원으로 산정돼 격차가 연간 3,524,399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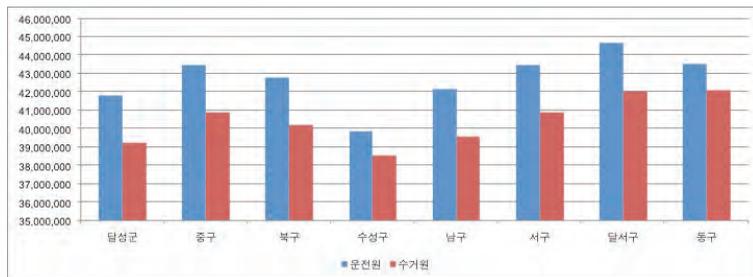


그림1)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간 1인당 인건비 산정 결과

>>규정별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돼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정확한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은 곧 시민의 환경과 직결된다. 현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각 규정별 적용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산정결과와 편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도 이후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공정한 산정방법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규정 이행 감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지현 수석연구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제안

>>대구 수성구, 빅데이터 활용 행정수요조사 실시

수성구청이 지난해 8월 정부3.0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한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해 혁신적인 행정을 선보였다. 일부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특정영역에 활용하려고 시도한 바 있지만 이를 구정 전반에 걸쳐 활용한 건 수성구가 최초였다. 수성구의 빅데이터를 통한 행정수요 검색은 행정과 빅데이터의 결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실제로 빅데이터를 행정에 도입한 신호탄으로써 정부3.0시대의 모범적·선도적 행정사례로 평가 받았다.

수성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민요구와 행정수요에 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조사 분석과 더불어 기존의 주민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기존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피상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심층적 인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해졌다. 또한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빅데이터 활용 행정수요조사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수요조사 결과, 수성구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우수한 교육환경'이 꼽혔다.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라는 명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수성구의 랜드마크는 수성못이고 주요 현안은 노인 복지 문제로 분석됐다. 뉴스 데이터에서는 수성구 지역 부동산, 지하철 3호선 모노레일 개통, 경신 고등학교 수능 만점 등의 이슈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자생적 버즈 데이터에서는 들안길, 수성못 맛집 등의 데이터가 가장 많



아 해당 지역의 먹거리 정보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에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대중교통 및 주차시설 부족이었으며, 특히 수성못과 범어천 일대의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의 종합의료시설 및 전문병원 부족으로 인한 수성의료지구 내 전문병원 확충 요구, 저소득층·여성에 대한 지원과 노인층 일자리 제공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주거환경 및 치안 분야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나 쓰레기, 하수도 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가 제기 됐으며 CCTV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교육 분야는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공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화요소를 연계한 문화 콘텐츠 활용 필요성 제기와 도서관 및 문화센터 등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시설 규모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충과 품질향상, 재래시장 현대화 의견이 제시됐다.

>>타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기술 활용은 타 지자체 행정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부산시는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주인구 및 비 상주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통계인 '부산서비스인구통계'를 2014



년 3월에 개발 완료했고, 최근 정부3.0의 개발, 공유, 소통에 부합,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도시서비스 분석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말 개발했다. 이는 창업지 선정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민간기업인 (주)모두컴퍼니와 협력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치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주차장 위치와 주차요금, 빈자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모두의 주차장' 앱 서비스를 지난해 3월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은 주차장정보 오픈 API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어 '주차장'을 입력했을 때 검색되는 30여 가지의 공공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DB화 시키고, 이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상에 표시,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시내버스 이용내역, 전자민원, 유동인구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 빅데이터 정책 제안

앞서 수성구 행정수요조사에서는 주차공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이미 확보된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앱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수성구에서는 시간대별 상습 정체구간, 시설별 차량 이용자 수, 상습 불법 주차지역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선별, 적재적소에 주차 공간을 조성해 구민 불편 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성구가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수요조사 첫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선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성구 내 분야별·부서별로 산재된 데이터가 방치돼 사라지는 것을



막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빅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분석데이터를 부처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계 모듈 또한 하루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보유한 IT부서와 문제 해결을 원하는 행정부서와의 협력을 장려하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해 비적극적 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이 지자체의 새로운 혁신사례로 떠오르는 지금, 수성구청도 빅데이터와 행정의 결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 등 부처별 공통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구축비용 절감, 정책수립 시간단축,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민간조직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인적자원과 기술자원의 도움을 받아 빅데이터 적용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은주 선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출자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 출자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하고,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설립·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

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상기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며, 출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이상인 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지정·고시를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 대상 출자·출연 기관 현황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월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더불어 출자 또는 출연해 기관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조례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 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면 우선 '설립방침 결정단계'를 통해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를 결정하고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다. 이후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타당성과 관련해 검토 전 1차 협의를 가진다. 협의 후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안에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 실시가 포함돼야 한다.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출연, 출자기관 설립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신중을 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기관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지방 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기관은 지자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상사업 해당 여부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적정 자본 분석 등을 검토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를 받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후에도 경영실적 평가해야

위 과정들을 거쳐 설립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와 시행령 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해서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경영실적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실적평가 전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역기관 선정, 기관 역량 살펴봐야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3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7조에 제4항에 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설립 필요성 및 기관 조직 형태 등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편의성 등 측면만 앞세우고 있어 부실한 검토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위해 검토 용역기관 선정 관련 제도 보완과 더불어 지자체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홍순대 편집장

대구시, 택시 감차 시동 걸었다

대구시가 본격적인 택시 감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계 활로 마련을 위해 총 7명으로 구성된 택시 감차위원회와 지난해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택시 감차 보상 등의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그 중 감차보상금과 관련해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됐다.

합의 결과에 따르면, 시는 8년간 총 46억여 원의 예산(국, 시비 포함)을 투입해 3,402대 감차를 시행한다. 감차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1대당 1450만 원, 개인택시 1대당 5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비교적 감차 보상금이 적은 법인택시 320대를 감축할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감차 결정은 지역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소득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지역 택시는 지난 1995년 택시 면허가 민선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돼 왔다. 지난 1995년 594대 증가 이후 '96년 767대, '97년 575대, '98년 33대, '99년 58대, '00년 365대, '01년 233대 등 별다른 감차 없이 증가세만 이어졌다.

또한, 대구시가 지난 2014년 '택시 총량선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구 공급과잉 비율이 36%(6,124대)로 전국 평균인 21.7%에 비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쟁 심화, 소득 저하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올해 감차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며, 행정예고제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뒤 택시 양도양수 제한에 따른 민원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번에 대구시가 택시업계와 합의한 감차계획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감차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업차량 감차를 제외하는 등 차별화를 뒤 대구시 현실에 발맞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해 "올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택시 과잉공급을 완화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운수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고급형 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역 택시 수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어 이번 택시 감차사업과 연계해 운수종사자들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혁 기자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kpar.kr



주요 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

지역주택조합, 선불리 가입하면 ‘낭패’



A 씨는 지난해 6월 현수막 광고에 이끌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전세살이가 지긋지긋했던 A 씨는 청약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 2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기로 한 것. 그러나 당초 올해 안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뚜렷한 윤곽이 보이지 않는 상황. 게다가 예정과 달리 토지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규모가 변경돼 추가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A 씨는 뒤늦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 했지만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투자금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약 없이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B 씨는 30년 지기 친구의 권유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수익성이 높아 노후 대비 자금 마련에 용이했고, 친구가 이미 조합에 가입돼 있어 자기 말만 믿으면 된다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선불리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가입해보니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확실히 받지 않은 상태에다가 시공사와 일부 조합원들과의 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 간 갈등이 극심한 상태였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무산 루머가 떠돌았고 결국 B 씨는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조합을 탈퇴했다. 이로 인해 친구와도 멀어졌고,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모집 광고에서 낮은 분양가, 분양의 편리성만 내세우는 바람에 서민들이 멋모르고 가입했다가 사업이 지연, 무산되면서 투자금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전국

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06곳이다. 2014년 27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조합설립 인가 가구도 6만7,239가구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34개의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설립 인가, 신청 중이며 준비 중인 곳도 20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드문 만큼 대구 내 지역주택조합 역시 난항에 빠져 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률이 약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경쟁 순위에 따로 구애받지 않고,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잔여세대 일반분양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개발이라 추진위원회 승인, 안전진단,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 생략으로 추진이 원활할 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 등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자신들에게 환원하는 원리다.

특히, 낮은 가격과 청약 경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전세, 월세 생활에 지친 중년층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미리재개발'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장점들 뒤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단점들이 존재한다. 사업 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조합원들 간의 갈등, 조합 회계 문제, 시공사 비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토지 95% 이상을 사들여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토지 사용 권리를 100% 얻어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시행사를 대행하는 조합장 등 직위자들의 급여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일부 지주들이 소유 '알박기'를 할 경우 사업기간,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나 자금관리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 같은 단점들 때문에 대구시는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했고,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몰려 있는



수성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게시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열기는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가입 전에 토지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조합원들 간에 갈등은 없는지, 시공사 소재가 명확한지, 일정에 차질이 있을만한 변수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추가부담금 발생 요인을 확인해봐야 한다.

분양대행사의 경우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위 사항들을 체크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합인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합이 내놓은 자료들을 100% 신뢰하기 보다는 직접 해당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확인해봐야 한다. 또 등기 이전 등 중요한 절차는 사업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세가 예상돼 지역주택조합도 타격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곧 분양가 하락이고, 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벌써부터 이로 인한 '돈맥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성 재평가와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성구 한 부동산 업자는 "지금도 지역주택조합들이 좌초되고 있는데 조합을 준비 중인 곳도 많아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이로 인한 서민, 지역경제 피해는 사실상 몇 백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 역시 "이미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와 당부 사항을 게시했으나 추가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려운 만큼 가입 전에 신중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1 SOLO 전국은 지금 '1인 가구' 열풍



최근 사회적,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뜻하지만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1인 가구는 이제 하자 있는 사람들의 공여지책이 아닌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포 세대'의 증가와 자신만의 삶을 누리려는 독신주의자 증가 등 사회,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기러기 아빠'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실버세대들도 넓게 보면 1인 가구에 해당된다. 1인 가구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화상인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지난 2000년 15.5%에서 2010년에는 23.9%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어 오는 2025년에는 31.3%, 2035년에는 34.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갈수록 흔해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체들은 '1인 가구' 맞춤형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인 가구인 싱글족들의 소비가 다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높은데다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식업계, 가전용품, 공연 전시, 부동산,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홀로 아이템'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나 브랜드숍에 가면 '1인 전용관'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악화로 소비

가 위축되고 있는 요즘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싱글족들의 소비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반면, 1인 가구가 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업도 있다. 바로 웨딩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미혼이 아닌 '비혼'을 택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웨딩 사업은 불황의 늪에 빠졌다. 대구의 경우 혼인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웨딩 관련 사업들이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1인 가구는 약 23만여 가구로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란한 가족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를 헤쳐 나가는 커리어 우먼, 혹은 경제적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초식남'들이 자주 비춰지면서 1인 가구가 트렌드화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만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1인 가구의 뒤편에는 저 출산과 건강 악화라는 그늘이 숨어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라고 답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라난 2세들이 다시 사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갔던 과거의 풍속들이 붕괴될 위험에 놓인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성장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또한,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세대가 함께 사는 일반 가정에 비해 불규칙적인 생활패턴, 불균형적인 식습관으로 면역력 유지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심리적인 부문에서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높아 자칫 알콜 중독 등의 2차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건강 문제 역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무턱대고 막을 순 없다.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대책과 사회 안 전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1인 가구에 대한 숙제를 풀어내야만 고령화, 경제 성장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다.

이 혁 기자

大慶研修院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속 쉼터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인재개발원 부설, **대경연수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터!



대경연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大慶研修院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대구는 문화공연의 도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계명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일 년 내내 크고 작은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고, 장르 역시 뮤지컬부터 거리공연까지 다양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대구는 지방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문화예술 인프라 덕분에 공연 수준 또한 수준급으로 인정받아 경상북도를 아우르는 문화 수도로 불리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이번 달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일시 6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문의전화 053)250-1400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클래식이 금난새와 함께 지역 관객들의 마음을 수놓는다.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는 이달 기획공연으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마련했다.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마에스트로이자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금난새가 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 박진희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과 함께 명품 클래식을 선보인다. 금난새의 명품 지휘와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인 디오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페르귤트 조곡 'Morning Mood', 'Death of Ase', 'Anitra's Dance',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RV 315 : Op.8 No.2 <사계> 중 '여름',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입문, Op. 34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공연인 만큼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클래식의 매력을 한껏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아티스트 : 선(線) - 삶의 비용

일시 5월 31일(화) ~ 10월 23일(일)

장소 대구미술관 2층(2전시실, 3전시실, 선근가든, 엘리베이터 앞, 복도)

문의전화 053)790-3000

대구미술관이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작가를 지원하는 전시의 일환으로 외부 기획자 장미진이 기획한 '대구아티스트 : 선(線) - 삶의 비용'展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수십 년 간 일관된 작품 활동을 매진해온 10명의 중견작가를 중심으로 회화, 입체, 판화, 서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선(線)을 모티브로 심도 있게 개진해온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선은 조형의 기초 요소이면서도 작가의 예술의지와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삶의 질감을 반영하기도 한 대상이다. 따라서 작가에 따라 임파선과 같은 생명의 선(線)이 되기도 하고, 실천적 행위에 이르는 수행의 선(禪)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전시는 '삶의 비용'이라는 부제를 통해 각 장르에서 수십 년간 일관되는 작가들의 조형철학을 살펴보고, 삶의 질곡과 애환을 이겨내며 치른 삶의 비용이 곧 예술의 비용이 되는 노정을 직관하고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대구 시민들에게 지역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자기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목 - 김길후 作 '현자 2014'
(Mixed media on canvas_227x182cm)

소시민의 로맨스

일시 6월 9일(목) ~ 6월 11일(토)

장소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문의전화 053)668-1800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수성아트피아 극단열전 '소시민의 로맨스' 공연이 열린다. 본 공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결혼과 사랑을 그려낸 휴먼 코미디극으로 극단 레몬이 제작했다.

'소시민의 로맨스'는 한 남자가 부인과의 소중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과거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섞여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이 잃고 살아가는 것,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웃음과 눈물, 감동을 함께 선사한다.

'소시민의 로맨스'는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와 잘 짜여진 극적 구성, 연출로 제1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대학극전에서 작품상과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미 재미가 검증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공연은 만 14세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며, 휴먼 코미디극이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공감, 소통하며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가곡데이

일시 6월 11일(토) 오후 3시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문의전화 053)666-6000

6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특별한 가곡 음악회를 준비했다.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는 한국 가곡을 새롭게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기획한 '우리 가곡데이'가 바로 그것. 본 공연은 성악가의 연주를 관객들이 일방적으로 감상하던 기존 공연들과는 달리 무대와 객석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음악회다.

'우리 가곡데이'에는 바리톤 김동규와 테너 엄정행, 하석배 등 각종 매체에서 우리가곡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해 '목련화', '그 집 앞' 등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가곡들을 관객들과 함께 연주한다. 이와 함께, 각 음악에 얽힌 이야기와 가곡을 잘 부르는 법 등 재미있는 토크도 함께 가미돼 가곡에 대해 지식이 없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날 공연을 관람하는 입장객들에게는 함께 부를 가곡들을 수록한 악보집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지역 업체, 지자체 용역 계약 ‘찬밥’



대구광역시 내 일부 지자체가 지역 업체를 배제한 채 타 지역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일삼고 있어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서울, 수도권 등 타 지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바람에 지역 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계약현황에 의하면 A지자체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167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152건, 1인 수의계약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1인 수의계약 중 타 지역 업체와 맺은 건수는 25건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넘는 규모다. B지자체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B지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 총 421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99% 이상인 420건이고, 1인 수의계약은 402건이다. 용역 계약의 90% 이상이 1인 수의계약인 셈이다. 여기서 타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14건으로 A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으로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이 수치는 경북도내 기업들을 지역 기업으로 인정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포항, 경주, 문경 등 도내 지역들을 타 지역으로 삼았을 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지역 용역 기관, 업체들은 “시내 지자체들이 이렇게 타 지역 업체들과 1인 수의계약을 일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예외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몇 몇 후보 업체에 용역을 맡겼었던 기관들의 평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웬만하면 지역 업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역 업체와 계약하려고 노력한다. 1인 수의계약, 그것도 타 지역 업체와의 1인 수의 계약은 소수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천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일 뿐 공개입찰 경쟁이 원칙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업체의 역량을 주관적으로 판단,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맺어 지역 업체들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혈세 유출’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지역 용역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명확한 조사나 기준 없이 타 지역 업체와 1인 수의 계약을 맺는다 해도 사실상 을의 입장이 업체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을 제기하기 어렵다”며, “지역 세금 유출 방지와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타 지역과의 1인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업체가 시내 일부 지자체로부터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업은 2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인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3~40만 원 대 용역을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경쟁 입찰로 하는 등 계약 관련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합당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편집국



‘대한민국 원조 복어불고기, 깊이가 다른 맛’ 미성복어불고기



본보는 음식 명가 연재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 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수성구 상동 12-7번지에 위치한 ‘미성복어불고기’가 영예를 안았다.

아름답고 재능 있고 마음씨까지 착한 사람을 일컬어 ‘팔방미인’이라고 부른다. 어느 모로 보나 빼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팔방미인’이 있다. 빨간 색감으로 침샘을 자극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입맛을 사로잡으며, 몸에도 좋은 복어불고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대구 10대미’에 속하는 복어불고기는 피부 미용과 숙취해소에

좋은 웰빙 음식이자 매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대구의 별미다. 식감과 효능, 맛 삼박자를 두루 갖춘 덕에 복어불고기 집 앞은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복어불고기의 원조는 따로 있다. 바로 ‘미성복어불고기’다. 전국 최초로 복어불고기를 탄생시킨 ‘미성복어불고기’는 38년의 노하우를 지켜오며 복어불고기 대중화에 힘쓴 복어불고기의 시초이자 산 증인이다. 덕분에 본

100% 무공해
콩나물 자체재배



대한민국 원조 미성복어 불고기는 지하 200미터 암반천연수를 사용하므로 믿을 수 있고, 아삭아삭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직접 착유하는
100% 참기름



참기름 착유기를 도입해서 직접짜낸 참기름으로 만들 수 있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100% 국내산 고춧가루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맛있게 맵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100% 국내산 천일염 소금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국내산 천일염 소금을 사용해서 맛있게 짜고 단맛이 납니다.

점 외에 경산, 마산, 롯데백화점 상인점 등에도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여러 언론에서 대구 대표 맛 집으로 소개됐을 뿐 아니라 연예인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도 복어불고기 대표 맛 집으로 소개돼 있다. 복어불고기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 '미성복어불고기'는 메인 메뉴인 복어불고기부터 복어탕, 지리, 복어 무침, 튀김, 수육 등 복어 관련 메뉴들로 구성돼 있다. 복어불고기의 경우 콩나물, 돼지고기, 부추, 버섯, 당면, 오징어 등 추가 토핑도 가능해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다. 특히, 이 집의 별미인 복어지리는 맑은 국물에 복어 본연 그대로의 맛을 우려내 해장으로 인기 만점이다. 복어 요리를 기반으로 타 요리까지 견비해 차별화를 두는 다른 음식점들과는 달리 복어불고기의 원조인 미성복어불고기는 복어 관련 음식으로만 승부한다. 소수의 전문 메뉴로만 승부를 본다는 맛 집들의 원칙이 미성복어불고기에 적용되는 셈. 초심을 잃지 않고 복어 그대로의 맛을 살려 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한다는 게 미성복어불고기의 원칙이다. 노하우와 신념을 담은 요리인 만큼 재료 준비부터 빈틈이 없다. 특히, 100% 자체 재배하는 무공해 콩나물은 복어불고기의 맛을 복돋워주는

1등 공신이다.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재배한 콩나물은 아삭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하다. 간을 조절하는 소금도 신안에서 직접 공수해온다. 그 중에서도 5년 이상 묵은 소금이여야만 복어불고기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기름, 고춧가루 등 세세한 재료들까지도 모두 대표와 직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부실하거나 의심 가는 재료는 부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익보다는 손님의 건강과 가게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미성복어불고기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덕분에 미성복어불고기의 모든 메뉴에서는 정갈하고 윤기가 흐른다. 뛰어난 맛, 엄격한 재료 선정과 더불어 미성복어불고기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원동력은 가족 같은 분위기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 서로 척하면 척이다. 수 십 년간 쌓아온 정과 미성복어불고기에 대한 자부심, 노하우로 뚝뚝 뭉쳐있다. 이처럼 지역 대표 맛 집이라는 긍지로 운영하는 미성복어불고기의 다음 목표는 복어불고기 대중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통을 목표로 국민들에게 더 저렴하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중점 과제다. 이에 롯데백화점과 관련 협약을 맺었고, 해외 직영점 진출까지 내다보고 있다.

미성복어불고기 측은 "미성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것"이라며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수 십 년간 미성복어불고기에만 매달린 탓에 다음 생애는 절대 음식점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 농담 속에는 38년간 지역 대표 맛 집으로서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다. 맛 집을 넘어 대한민국 음식 브랜드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미성복어불고기. 미성복어불고기의 맛과 신뢰에 대한 고집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 혁 기자





경산시, 화장품 특화단지로 날개 단다

경산시가 중국 신생활그룹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해 K-뷰티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산시, 대구한의대, 중국 신생활그룹 유한공사는 지난 4월 25일 중국 상해에서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협약을 통해 경북도 등 4개 기관은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투자 협력, 신생활그룹 직원 경북도 방문교육 시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생활그룹은 1994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 브랜드, 300여 종의 화장품을 생산해 연매출 5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이러한 '큰 손' 그룹이 경산에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을 결심하게 된 건 중국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 덕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가수, 배우들이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까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 최근에는 중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동남아권 소비자들에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라는 점 자체가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24억 5천 만 달러로, 3년 전에 비해 약 3.5배 성장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약세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의 화장품 산업 공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신생활그룹 또한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를 발판으로 화장품 산업에 힘 쏟을 예정이라 경산시를 비롯한 경북도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활그룹은 이번 MOU를 통해 경산시가 5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화장품특화단지에 우선 입주하고, 지금까지 희망했던 1만평

규모의 투자를 확대, 2만평 규모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신생활그룹이 매년 판매실적 우수 직원들을 대구한의대에 보내 인센티브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룹 측에서는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총 2만여 명을 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구한의대는 정기적인 교육 협력체를 갖추게 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 경제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경북도는 신생활그룹 교육생 2만 명의 방문 효과가 1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대구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안동 등 권역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교육생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숙박, 쇼핑, 교통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신생활그룹 투자 덕분에 경북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K-뷰티 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와 함께 중국 화장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도내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제 경산이 화장품산업 수출거점으로 성장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4개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호진 기자





여름철 피부 암살자 '자외선'



올해는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습슬 무더위의 서막이 오르는 6월은 1년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 중 하나다.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의 합공으로 이미 거리에는 반소매, 반바지에 선글라스까지 낀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옷차림이 더위는 덜어줄지언정 자외선의 공격까지 피할 순 없다. 이미 지난달에는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을 기록했다. 야외에서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30분 만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 피부과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반점, 기미, 주근깨 관련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외선이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햇빛을 쬐다 보면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당한 햇빛은 건강에 좋다', '여름이니깐 원래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등 인식들이 자외선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다. 물론 적당한 자외선은 비타민D 활성화, 면역 체계 강화, 우울증 예방 등 건

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여름철에는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자외선 지수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지수는 0~2.9까지는 '매우 낮음', 3.0~4.9는 '낮음', 5.0~6.9는 '보통', 7.0~8.9까지는 '강함', 9.0 이상은 '매우 강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자외선 노출로 인해 홍반이 생성되는 시간도 2~3시간, 100분 내외, 1시간 내외, 30분 내외, 20분 이상 등 점차 짧아진다.

자외선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자외선은 UV(Ultraviolet)라고 하는데, 자외선 파장 길이에 따라 UVA(자외선A, 장파장 자외선), 파장 320~280nm를 UVB(자외선B, 중파장 자외선), 파장 280~200nm를 UVC(자외선C, 단파장 자외선)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피해야 하는 건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불리는 UVA(자외선A)다. 우리가 흔히 알고 이는 피부 노화, 주름, 피부암 등은 모두 UVA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다.

UVA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자극,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게 해 피부에 검버섯이나 기미, 잔주름을 생기게 한다. 자외선 B(UVB)는 햇빛에 노출된 지 몇 시간 만에 피부의 그늘리거나 붉어지는 반점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자외선 A(UVA)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지속적으로 기미, 검버섯, 주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UVA는 커튼이나 유리창을 통해서도 실내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 지수		홍반 생성시간
9.0이상	매우 강함	20분 내외 노출 시
7.0~8.9	강함	30분 내외
2.0~6.9	보통	1시간 내외
3.0~4.9	낮음	100분 내외
0.0~2.9	매우 낮음	2~3시간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크게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를 피해 활동하는 것과 모자를 쓰는 것, 선크림을 수시로 바르는 것 등이다. 이 방법들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특히, 여름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활동 자제를 권고할 정도다. 이 시간대의 햇빛을 피하면 하루 자외선의 절반 이상을 피하는 것과 같다.

외출 시 햇빛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챙이 짧은 모자는 햇빛 차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챙 길이가 최소 10cm 이상이어야 약 70% 이상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선팅 필름을 추천한다. 선팅 시 차 앞 유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하게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훨씬 효과가 있다.

자외선 차단에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화장품이라고 여겨졌던 자외선 차단제가 오늘날 여름철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수많은 차단제들이 출시됐다. 각자 성분부터 바르는 양까지 제각각이다. 이 중 본인의 피부 상태나 기호에 맞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한 상식들을 숙지한 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의 핵심 기능은 'SPF'와 'PA'로 나뉜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차단지수로,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말한다.

SPF 지수는 1당 약 15분 내외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시중에서 많이 거래되는 SPF 20~30 제품은 약 3~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 PA 지수는 수치가 아닌 + 등급으로 효과를 표시하는데 +는 자외선을 차단, ++는 효과적으로 잘 차단함, +++는 매우 잘 차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심코 디자인이

나 가격에 이끌려 구매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전문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보통 우리나라 성인 평균 활동패턴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시 SPF 30 정도, 야외활동 시 SPF 50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

차단제 양은 보통 로션을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바르다 생각하고 쓰면 좋다. 덕지덕지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 위에 열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준다. BB나 기본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발라도 효과는 유지되지만 과한 메이크업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면 모공을 막고 순환을 방해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사용 후 세안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없을 시에는 이중 세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나오는 제품들은 워터프루프 성능이 좋아서 세밀한 세안을 요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자외선 차단제의 유통기한이다. 특별히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품 특성상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쓰이고 보관되기 때문에 기능 저하나 변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봉 후 6개월 이상 된 제품은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혹은 물놀이를 갔다가 제품 내부에 물이 스며들 여갔다면 이 또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차단제는 물이 들어가기 전 확실히 바른 후 물 밖이나 옷장에 잘 보관했다가 손이나 사용 부위에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자외선 때문에 기미나 반점이 생겼다면 병원에 방문해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다. 자외선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은 이상 피부 스케일링이나 피부 박피술 등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해보는 걸 권장한다. 간혹 자외선 노출로 피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손으로 짜지 말고 병원에서 먼 포괄출기를 이용, 제거하는 게 좋다.

도요진 기자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봉사와 헌신으로 뚝뚝 뭉친 회원들 지역민 모두가 웃는 날까지 힘 쏟을 터“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는 늘 분주하다. 어머니 같은 포근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로 지역사회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면서도 지역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회원 중에는 본업을 겸하며 활동하는 사람, 주말도 없이 활동하는 사람 등 저마다의 사연들을 갖고 있지만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있다. 나의 봉사와 헌신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 때문이다. 회원들의 모난 구석 없는 동글동글한 마음은 커다란 원이 되어 지역사회에 사각지대까지 끌어안았다. 이런 값진 활동 덕분에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년간 지역 대표 봉사단체이자 여성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각 여성 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 사업과 지역사회 발전 사업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울진 여성 단체들의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이후 김영순 초대 회장부터 현재 회장인 전송자 회장까지 여러 회장들을 거치며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해왔다. 설립 당시 여성들로 이뤄진 협의체라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말끔히 사라진지 오래다.

이미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여성대회 개최, 자원 봉사 활동, 무의탁 불우 노인 및 소년 소녀 가정 후원 사업, 평생교육 사업, 농가 주부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의식과 자주성

고취를 위한 사업, 다문화 가족 교육 사업 등 울진군 내 여성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들로 '여성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전송자 회장은 앞서 울진군새마을부녀회 회장,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울진읍 대흥리 이장 등을 역임한 '봉사 베테랑'이다. 전 회장은 약 12년간 쌓아온 봉사 노하우로 회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녀는 “협의체가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온 건 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사회 참여도 증가와 회원들의 따뜻한 성품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원들에 비해 업무 관련 경험이 많다고는 하나 협의회에 가입된 군내 14개 단체, 약 5천여 명이 소속된 단체가 잡음 없이 돌아가려면 회원들의 협조가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이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전 회장은 “봉사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군민들을 위한 기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들의 자기계발에도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전반에 걸쳐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혁 기자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안동장터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안동장터로 오세요.
Andong Marketplace 

안동장터 인터넷 주소 : <http://andongjang.com>

문의전화 : 080-501-0501, 054-853-5088 팩스 : 054-841-5377

안동장터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특산물을 산지가로
직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안동시에서 운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조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사회를 움직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척박한 지방에서 대다수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남들보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는 권력을 거래하는 상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원칙과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명언처럼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하나 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경북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을 선정합니다.

대상은 대구경북 내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0인은 특별 인터뷰 기사를 통해 경영저널 지면과 홈페이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패를 수여해 지역 대표 인사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보에서 다룬 주요 인사들부터 선정할 예정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번 100인 선정에 기틀이 될 인사들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인물은 김월화 대경리더십아카데미 원장, 이재훈 제6대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박인규 DGB금융그룹 CEO, 진영환 달서구 삼익 THK 기업 대표 등 4명입니다. 본보는 앞으로 매월 한 명씩 선정해나갈 예정이며, 지역사회를 이끄는 100인들의 신념과 지혜를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발전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100인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1등 경제정책시사지, 고품격 경제, 정책 전문 매거진이라는 본보 창간 취지에 걸맞게 리더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언론 창달의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리더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책과 경영전략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시대별 이슈에 대한 집중 취재로 해답을 내놓겠습니다.

신도청 이전, 혁신도시 조성, 제20대 총선 등으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의 중심지로 떠오른 지금 100인의 리더들과 함께 성장의 고삐를 힘껏 당기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리더들의 화합, 협력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독자 및 리더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최적임금제 시행



기획재정부 소관 종합 학술연구기관인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하 한기연)이 올해 초 연구원 최초로 최적임금제를 도입해 타사에 모범이 되고 있다. 최적임금제란 신입사원 기준 2천 5백여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연구원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제도다. 한기연에 따르면, 연구원 최초로 최적임금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5개월여 만에 신입사원들의 연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 연구원 이미지 제고 등 부가적인 이익도 얻고 있어 타 연구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기연 관계자는 “최적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연구 능력 향상, 사기 진작 등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대표 연구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소통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연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 직원 멤버십 강화 및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원을 선정해 포상과 포상휴가를 제공하는 등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포항시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 ‘복적’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에서 열린 ‘2017학년도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에 학부모, 학생, 교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변경된 입시요강 사항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개발, 배부한 교재와 영상자료를 통해 서울 대성학원 이영덕 소장이 2017학년도 입시 주요 변동사항과 주요대학 입시요강, 성적대별 수능 대비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대응전략 방법을 설명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2017학년도 진학지도 및 입시전략컨설팅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짧은 시간에 입시 전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돼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뿐만 아니라, 8월 4일 여름방학 중에 맞춤형 입시상담(영어·수학 학습법 및 입시설명)과 9월 3일 테마가 있는 진로상담(논술 및 수·정시 최종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대학입시 관련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 심곡천 개선 정비사업 완료



경주시는 서면 지역의 오랜 숙원 이었던 심곡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심곡천은 하천 폭이 좁아 1991년도 태풍 ‘글래디스’와 2002년 태풍 ‘루사’ 때 주택, 농경지 침수, 제방 유실 등의 큰 피해가 발생돼 지난 2011년 4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5월 착공해 2년간의 공사 끝에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했다. 이에 시는 심곡천 일원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시 의원, 관계 공무원, 시공사 등 총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끔히 정비된 사업장을 둘러보고 준공을 축하했다. 심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76억 원이 투입돼 하천정비 2.0km, 교량 3개소 개체 및 확장했고, 하천의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났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선한 만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어떠한 재난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면서 공사 대표 및 현장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미보건소, '청바지' 운영협약 체결



구미보건소는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금오고와 청바지(청소년 바른 건강 지킴이)동아리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부족한 건강지식을 습득, 개인별 건강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주변의 담배판매업소, 주류 판매업소 등 흡연·음주조장 환경을 감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건강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건강한 학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등 대외 활동에 다 같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청소년 건강관리는 향후 성인기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식습관 및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천시,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추진



김영석 영천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 농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농촌 일손돕기 중점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 및 각 읍면동, 농협 등 25개소에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마련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각급기관 및 유관단체, 군부대등 40여 개 기관에 일손 돕기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영천시에서는 부서별 1일 이상 민원업무를 제외한 전 직원이 솔선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해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 군부대, 영천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외, 지역업체 기관단체에서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어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정재식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군부대 및 각급기관단체, 지역 업체에서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해 준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주시, 제1회 추경 7,361억 의결



상주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이 당초 대비 1,103억 원이 증액된 7,361억 원으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지방재정에 부담이 됐던 순수 시비 채무 243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 하는 것이다. 이로써 원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이자부담액 24억 7천 8백만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투자사업에 대한 잠재적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SOC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25억 원 △문화 및 관광개발사업으로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조성사업, 낙동강물놀이장조성사업 등 53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7억 원, 기업지원 15억 원이 확정돼 하반기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와 수요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편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 의회의 엄격하고 심도 있는 심의에 공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 일내 사업을 추진해 조기집행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통협력의 시대
미래의 리더는 누구인가?

더 큰 목표!
더 큰 인재!
더 큰 결과!

대경인재개발원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경인재개발원
리더십캠프 Leadership Camp

- 대상 : 큰 꿈을 안고 미래를 이끌
초등/청소년/대학생
- 교육내용 : 리더십교육
- 일시 : 7~8월 방학기간 [초등(1박2일),
청소년(2박3일), 대학생(3박4일)]
- 장소 : 대경연수원
- 문의 : 053-766-1368





‘대경인재개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 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학점인증제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교육훈련
- 편(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3층
Tel) 053.766.1368 Fax) 053.766.0379